

# 지역 경쟁력 키우고 도민은 행복... 상생 발전 동반자



장충모 사장

가 예약금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기술력이 우수한 지역 기업을 위해 지역공기업이 일정액을 은행에 예탁, 경영 자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드든ESG펀드' (30억)와 '전남지방소멸대응펀드' (30억), '전남행복펀드' (20억)로 조성한 80억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국민 시각에서 상시 감시체계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사적이익 추구를 원천 차단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투명한 준법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시스템이다.

지방공사 최초로 마련한 안전감사제도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 잠재적 위험요인까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정책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위, 주거복지 문화대상(최우수상), 글로벌표준 상생경영부문 대상, 전국 의무 공공구매율 평가 1위, 대한민국 에너지대상(국무총리 표창), 한국ESG 지방공기업부문 경영대상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지역 상생 발전의 동반자로  
=전남개발공사는 올해 '더 위대한 전남 선도,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상생 동반자'라는 경영 목표에 따라 5개 분야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수립,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사업

에 힘을 쏟아 기회를 땅으로 바꾸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공기업 책무라는 판단이다.

공사는 구체적으로 ▲균형발전 신바람 전남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살기좋은 주거복지 실현 ▲공공주도 에너지 대전환 ▲도민이 신뢰하는 1등 공기업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2-3개의 추진 과제를 정해놓은 상태다.

화순 삼천지구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배후 특화주거단지 조성하면서 교통·방범·재난·안전 등 도시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로의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 특화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고 무안 오토·담양 보춘·광양 덕례 도월 지구는 도민 수요를 고려한 거점형 중소

규모



살기좋은 지역 선도...전남 유일 공기업 전국 첫 공공임대주택 '만원주택' 시행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행복펀드' 등 지역 실정 반영한 맞춤형 개발 사업 호평

올 5개 분야 12개 중점 추진 과제 추진 장보고·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출자 1만2700개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모 도시로 개발을 추진한다.

나주 국가산단, 고흥 국가산단은 전남 르네상스를 이끌 미래형 전략산업 인프라로 조성, 인공태양 연구 시설·조각력 레이저 연구시설, 광주·전남 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안 케이(K) 푸드, 한전 공대 클러스터, 울촌 2산단 등은 지역 맞춤형 특화산단으로 구축해 기업이 몰려오는 기회 땅, 전남'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

개발 공

사는 또 전국 최고 수준의 인사와 해상풍력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장기 비전을 확립하고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남에서 진행 중인 해상풍력사업에 더해 1만2700개 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자체사업으로도 지난해 12월 설치를 완료한 전남 1호인 영광 약수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더해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에도 출자, 1만 2700개 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고속도로 5개 법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뿐 아니라 영암 KIC 주차장, 나주 도민발전소 등 공익형 발전소를 확대하고 발전이익을 지역민에게 환원,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쏟는다. 개발공사는 지난해 8억 5000만원 수준이던 누적 발전이익을 올해 12억 9500만원까지 늘려 환원한다는 구상이다.

민·관이 상생·협력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문화 확산 및 신뢰할만한 준법·윤리·안전 경영체계도 강화해 믿을 수 있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게 전남개발공사 입장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지역사회 행복과 성장을 이끄는 선도적 공기업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가 전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적 자립을 이끌어가는 핵심 공기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장충모 사장의 리더십과 직원들의 변화와 혁신 의지가 어우러지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로 이어졌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석이다.

◇ '최초' 수식이 붙는 지방공기업으로=전남개발공사는 전남 유일의 공기업으로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선도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 공공임대주택사업인 '전남형 만원주택', '지방공기업 최초 행복펀드 운영', '전국 최초 기부실적 우대 계약제도 운영', '지방공사 최초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지방공사 최초 안전감사제도 도입' 등 '최초'라는 수식이 붙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며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공사가 추진중인 파격적 지역 개발 정책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선도적 사업 발굴, 지역 현장과 소통하면서 내놓는 상생 프로젝트 등은 지역 발전의 토대를 쌓고 지역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전남 핵심 공기업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형 만원주택의 경우 소멸위기에 놓인 전남 16개 시·군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000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신규로 짓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고흥·진도·보성·신안 등 4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고 현재 진도·고흥은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인허가 협의나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이다.

오는 2035년까지 전남도 예산(1800억)과 지방소멸대응기금(933억) 등 2843억원을 투입한다. '전남행복동행펀드'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전남개발공사



1 전남도 주거복지센터 주도로 진행된 '전남형 만원주택' 설명회.

2 온라인 경영회의 등은 사장과 직원 간 실시간 소통을 돕는다.

3 지난 2023년 전국 전국 1259개 공공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4 전남개발공사 사옥

프라를 구축해놓는 게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의 할 일이고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전남 개발공사가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고흥 우주발전사체 국가산단, 무안 케이(K)푸드 산단, 여수 울천 2산단, 나주 컨텍 클러스터 단지 조성 등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장 사장은 전남 유일 공기업으로 지역 발전의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도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년 당기순이익의 10%를 지역 발전기부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인재육성장학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복지기부금 기탁 등 2024년 한 해에만 58억원을 기탁했다. 지방공기업 최초로 전남행복동행펀드(20억원)를 조성하는 등 8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운영 중이다. 공사 주도로 전남도 19개 공사·출연기관이 참여한 '고형사각기부체 응원 캠페인'도 보였다.

"기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사회에 돌려줘 상생 성장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한다면 다른 기업들의 동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행복을 실현하는 파트너로 전남 발전을 이끌어가는 공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장충모 전남 개발공사 사장

'역대 최대 579억원의 당기순이익, 전국 최초 공공임대주택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추진, 지방공기업 최초 행복동행펀드 조성,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위 등...'

장충모 사장 취임 이후 지난 2년 간 전남개발공사가 일궈낸 성과다.

특히 '전남형 만원주택',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 사업과 최우수 공공기관에 선정되는 등 제갈할 수 있는 경영 혁신 등으로 '전남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효능감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 데는 장 사장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역', '사람'이 중심이 된 경영 철학이 한몫을 했다.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 전남개발공사의 비전입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로 지역이 소멸을 걱정하고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전남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게 공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개발공사가 정한 5개 분야, 12개 추진 과제를 정한 것도 이같은 목표와 비전에 따른 것입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이러한 배경을 통해 추진됐다.

## "고흥·진도 등 '전남형 임대주택' 전국 입소문 일자리 넘치고 청년 머무는 고장 만들기 최선"

현재 고흥·진도·신안·보성에서 추진중인 전남형 만원주택은 전남의 주도적 공공임대 정책으로 자리잡으며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났다. 건물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관리하면서 다양한 입주민 서비스·주거지원 상담 등을 행할 '주거복지센터'도 구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나치지 쉬운 분야까지 챙기는 꼼꼼함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개발공사가 해야 할 전남의 주도적 공공임대 정책이 없었어. 그래서 제안을 했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더라도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처음 추진하는 건데, 지사님 결정이 결정적이었어."

이 정책은 '떠나는 전남'이 아니라 '살만한 전남'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한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2024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장 사장은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전남 발전의 토대를 갖춰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지역 산단 개발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사무실 한 쪽에 걸여놓은 전남 22개 시·군의 개발계획도를 살펴보면 시·군 발전방향과 연계된 맞춤형 사업지를 찾아내고 특화된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 등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적으로 랜장은 일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기업들이 언제든지 들어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인